

# 한옥마을 평일 문화예술공연 '풍성'

### '유유자적' 개막... 부채 춤바람 일으키다' 등 계속 선보일 예정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평일 저녁에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이 선보인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유유자적(悠悠自適)'(이하 '유유자적') 개막공연을 가졌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주관하는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유유자적'은 이날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유유자적'의 빚장을 여는 개막공연에는 '동남풍이 온다.라스트포원+디제이 콜라보'가 출연해 관객을 신명나게 이끌었다.

전통 타악을 중심으로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장르를 엮은 '동남풍이 온다.라스트포원+디제이 콜라보'는 동남풍의 전통농악가락과 디제이의 전자음악, 비보이 크루인 라스트포원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오는 6월 10일까지 '유유자적' 무대에 올라 90분 동안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무대를 여는 '문(門)'과 '비너리'를 통해 신명나는 소리로 관객의 북을 축원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가락을 집대성한 '삼도농악가락'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한 번에 들려준다. 이어 전통 타악을 중심

으로 태평소와 디지털 사운드, 비보이의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조화를 이루는 '크리에이션'은 색다른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 라스트포원의 춤사위와 동남풍의 콜라보레이션은 주목해야할 무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유유자적에는 개막작인 '동남풍이 온다.라스트포원+디제이 콜라보'에 이어 6개의 문화예술단체가 1팀씩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날마루무용단이 '부채, 춤바람을 일으키다'를, 7월 7일부터 29일까지는 전주시립극단이 '한옥마을 잔치마당극' 전주시는 맹진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8월 4일부터 19일까지는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다섯 바탕 오미주(단체명: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이,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문화포럼 나니레의 퓨전전통해학극 '미스타존'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9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이창선 대금스타일과 함께 하는 모노드라마 '협객이 유씨'(단체명: 푸른문화)가 관객들을 만나며,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의 뮤지컬 '전주연가'가 유유자적의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유유자적의 입장료는 1만원이며, 전북도민과 청소년,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0% 할인이 주어진다. 이밖에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상가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한복을 착용한 관객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5월 27일 금요일 해돋이 05:19 | 해질 19:39 | 달출 23:51 | 달질 09:53

날씨 최저기온 13~16도 최고기온 26~29도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내실화로 차별화 전략 마련

전시사업 · 마케팅 · 네트워크 등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질적 내실화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질적 내실화를 중심으로 지역식품 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강화, 비즈니스 성과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발효식품엑스포 사업을 추진해온 진흥원은 그동안 조직 및 규정 정비, 전문가 자문, 사업 실효성 및 적격성 검토를 실시, 네가지 차별화 전략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주요 차별화 전략으로 크게 전시사업, 마케팅 네트워크, 이터테인먼트(Eat + Entertainment) 등을 내세웠다.

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전시, 마케팅, 네트워크 분야의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에 주력했다면서 "기업 바이어, 참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닷새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다.



26일 전북지역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전북도민 일동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북 시민단체들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개정하라" 촉구

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전북도민 일동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면서 "24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에 10일만에 6,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후 2년, 특조위 활동과 유가족 및 국민의 노력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있다 보니 진전된 진상규명은 가로막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6월에 특조위를 강제 종료하고 7월에 세월호를 인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 전북지역 당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법 개정의지를 묻고 그 답변을 전북도민들께 공개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전북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의 역사적 요구를 배반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어 단체들은 "지난 총선에서 두 당은 '특별법 개정, 특검실시'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 했었고 그 진정성과 실효성은 개인 즉시 개정이 당론으로 채택될 때 발현될 수 있다"면서 "국회개원 즉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요구권 보장과 의무이행 조항 신설, 세월호 인양 감독권 및 정밀조사권 보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5월 27일 금요일 해돋이 05:19 | 해질 19:39 | 달출 23:51 | 달질 09:53

날씨 최저기온 13~16도 최고기온 26~29도

## 전북대, 필리핀에 아시아 문화교류 교육센터 설립

전북대학교가 동남아시아 권 문화교육센터를 주도해 결실을 맺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필리핀 코델레라대학교와 중국 로동대학교 등과 손을 잡고 필리핀에 '아시아문화교류교육센터'를 이날 설립했다.

필리핀 교류 지역과 대학들을 순방하고 있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25일 코델레라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문화교류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아시아문화교류교육센터는 전북대와 필리핀 코델레라대학교, 중국 로동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우수 인력 양성 및 교류,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것

여기에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한류창의인재사업단(단장 김 건)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센터 설립에 힘을 보탤다.

이날 저녁 필리핀 국영방송인 ABS-CBN에 출연, 아시아 대학 간 학생 교류와 인재 양성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코델레라대학교 총장과 중국 로동대학 국제교류대표 등이 전북대를 방문해 이를 구체화하는 협의를 진행해 센터 개소가 급물살을 탔다.

## 전국 혁신교육 담당관 협의회

### 시도교육청 정책개정교육과정 · 평가혁신 반영 상황 등 공유

전북 혁신교육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교육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혁신교육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국 혁신교육 담당관(자) 협의회(전국 혁신교육 네트워크)가 전북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새로운 학력 공동연구와 관련한 연구위원회 활동 상황과 학술대회 추진 상황을 들은 뒤, 시도교육청 정책의 2015개정교육과정 및 평가혁신 반영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주제별 분과 협의를 통해 시도별 실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갔다. 분과 주제는 ▲혁신학교 성장 지원 정책 ▲현장리더 발굴, 성장, 역할분담,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인사혁신정책 나눔 등 4개다.

분과 협의가 끝난 뒤에는 전체 협의를 통해 각 분과별 협의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정식 안건인 '새로운 학력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정책에 대한 열연 토론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적 연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